핵인(核人, nuclear man)

(욥기 27:1~23)

1.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7.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핵인(核人, nuclear man)'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핵인(核人, nuclear man)'
아이언맨은 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싸우는 영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슈퍼맨이나 원더우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폭탄, 핵무기, 북핵문제 등으로 알려진 핵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뉴클리어맨(nuclear man) 즉 핵인(核人)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되고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가 나타납니다. 원자를 또 쪼개면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은 원자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무기는 이 원자의 핵이 분열이나 융합하면서 발생시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핵 에너지의 양을 조절하면서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발전소 등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은 우리생활에서 일상화되게 되었습니다. 전기도 핵발전소에서 만들었고,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부산과 동해에서 우리나라 해군과 연합훈련을 합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며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가 아주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이 일상화되고 관심거리가 되는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핵의 융합과 분열 과정에서 발

생하는 핵폭발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무기로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 인간 자체도 핵에너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이언맨이나 슈퍼맨은 한 명 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인격이라는 핵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뉴클리어맨입니다. 인격에서 나오는 힘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본 에너지는 바로 인격의 핵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인격의 핵은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핵에너지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에 사용하는 핵연료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격의 핵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 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나'라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속이 비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향자적(向自的)이 됩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 '나'라는 의식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대통령자리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재벌들에게는 경영의 흑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스님에게는 한 때 난초가 대상이 되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성공한 목회가 대상일 수 있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쓰는 만년필이나 구두조차도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은 언제나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관계함을 통해서 나로 태어날 때에, 마음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대상과 결합하여 인격의 핵을 이룹니다.
모든 물질의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격의 핵은 마음과 첫 번째 대상으로 선택한 것의 결합 상태입니다. 이 핵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첫 번째로 붙잡고 결합하였다면 마음과 돈의 결합상태가 인격의 핵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생각하고, 돈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말 속에는 돈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과부의 마음과 외아들이 결합하여 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온갖 힘들고 궂은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과 결합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격의 핵을 이해함으로서 본문의 욥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욥과 세 친구가 세 번의 주기로 나누어서 변론을 해왔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하기를 한 주기로 삼아서

세 번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욥은 모든 변론에 대한 결론으로서 27장부터 31장까지 쭉 이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32~37장까지는 새롭게 등장하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다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들으며 욥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까지는 세 번에 걸친 변론의 결과로서 욥은 또 다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8~12절은 친구들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이며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저주합니다. 13~23절 마지막까지는 그러한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13, 14, 16, 17절을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할지라도 /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앞서 소발이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소발이 악인이 일시적으로는 형통한 것 같아도 망할 것이라고 하자, 욥은 이에 대해 악인도 끝까지 재앙을 만나지 않고 형통을 누릴 때가 많다고 반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욥은 이전에 소발이 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반론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마치 자신의 형편을 악인이 당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의 자녀들이 다 번영하다 죽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6~17절에서 '그가 비록 은을 티끌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할지라도 /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결국을 이야기하지만 재산을 다 잃은 것은 욥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납득하기 위해서는 인격적 핵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 비해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인격의 핵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과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무슨 일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삶을 구경하는 자의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막대한 재산을 주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열 명의 자녀가 태어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도 마치 남의 일을 대하듯이 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을 때에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가져가신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욥은 재앙의 현장에서 자신이 책임질 일이 없다는 확

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욥은 늘 마음과 하나님의 주체성을 첫 번째로 결합시켜서 인격적 핵을 만들었고, 그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유를 얻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친구들은 욥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마음을 결합시켜 핵을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재산과 마음을 결합하여 핵을 만든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돈을 버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바스가 돈과 마음이 결합된 인격적 핵을 가진 자였다면 욥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는 부러워했을 것이며,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자를 의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한편 돈을 못 버는 자에 대해서는 불의한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첫 번째로 결합된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발이 자녀와 마음의 핵을 결합한 자였다면 열 자녀를 가진 욥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다 잃자 자연히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으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마음이 결합하여 핵을 이루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허락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주체성이 삶의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을 첫 번째 사실로 받아들이고 핵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핵의 상태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너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 속에서도 욥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체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재앙을 만나기 전 모든 복을 받아서 풍족했을 때에도 친구들을 만났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재앙 때에도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듯이, 축복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주체적인 움직이심을 인정할 뿐 자신의 행실로 인한 결과임을 결코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인격의 핵이 욥처럼 하나님의 주체성과 결합하지 못한 채 이 세상과 결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들의 마음의 핵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돈 자녀 명성 건강 등과 결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고 말했던 소발의 말에 이어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체성과 마음의 핵을 결합한 자와, 세상과 마음의 핵을 결합한 자에게 같은 재앙이 내렸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마음의 핵을 이룬 자는 재앙을 만나든 복을 만나든 본질적으로 잃거나 얻는 것이 없지만, 세상으로 마음의 핵을 이룬 자들은 재앙을 만났을 때에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과 가족을 잃으며 마음에 고통을 느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체성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없지만 잃은 것도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었음을 재발견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자신의 당한 처지를 일찍이 소발이 이야기했던 악인이 당하게 될 처지와 비교하면서 말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잃는 상황에서도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으면 성령의 빛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욥과 같은 결합이 있어야만 합니다.

욥은 아직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체성과 마음을 결합시켰습니다. 마음이 돈이나 자녀나 승진과 취직 같은 것들과 먼저 결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과 마음이 결합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들을 위해 동원되게 됩니다. 자녀와 마음의 핵을 이루는 상태를 위해 하나님을 동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관계일지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며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볼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결합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며 찾아도 하나님과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욥은 비록 십자가를 몰랐지만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서 그 일하심과 마음을 결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결합함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실업률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는 상황을 우리는 십자가와 마음을 결합시킴으로서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돈에 마음을 빼앗길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와 결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결합하여 돈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 돈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은 돈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가짐으로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으므로 배부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와 내 마음이 결합하는 인격의 핵을 가지고 십자가 뉴클리어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뉴클리어맨이 되면 만사가 오케이가 될 것임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